

겨울

묵상 최용우 지음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눅12:27)



겨울 묵상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야시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저의 핸드폰 선택 기준은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였습니다.

PC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바탕화면에 성경구절이 들어간 사진이 자동으로 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Jesus365'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기만 하면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이 바뀌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포토샵 작업으로 성경구절을 일일이 넣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Jesus365' 프로그램이 무력화되어버릴 때까지 10년 넘게 수십만독자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제가 찍은 사진으로 매일 바꾸어준 것입니다.

이제 'Jesus365' 사역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 800장을 골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묶어 보았습니다.

저의 사진은 평범한 일상에서 찍은 자연스런 사진이 많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 세상을 시인의 마음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최용우



일상의 리얼리티

거창하고 요란한 사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실은 평범한 일상에 숨어있습니다.
저 패랭이꽃, 거미가 쳐 놓은 거미줄,
보도블럭 사이의 우슬초 뿌리,
무심코 핀 호박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 보아도
저 속에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단번에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思考)하는 나입니다.
숲속을 걷어가는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110

꾸민순서

1장

항아리



- | | |
|--------------|---------------|
| 12 항아리가 추을까봐 | 37 하얀눈이 내려앉아 |
| 13 모진추위 견뎌내야 | 38 하나님의 크신사랑 |
| 14 무말랭이 한젓가락 | 39 주홍같이 붉은죄도 |
| 15 하늘향해 두팔벌린 | 40 토끼들은 도란도란 |
| 16 회색겨울 하늘에는 | 41 벽을뚫고 열매맺은 |
| 17 짜르라니 내린눈이 | 42 겨울에도 싱싱하게 |
| 18 하늘높이 올라갔네 | 43 눈이오나 비가오나 |
| 19 몇사람이 지나갔나 | 44 얼음장밋 세상에선 |
| 20 헛돌헛돌 거북이들 | 45 하늘향해 두팔벌려 |
| 21 사자들이 문지기라 | 46 아홉봉을 넘다보니 |
| 22 우리동네 쑥티마을 | 47 살아있네 움직이네 |
| 23 찬양하고 기도하는 | 48 한겨울에 분홍장미 |
| 24 하얀눈길 오르막길 | 49 차분하고 고요하고 |
| 25 금남성당 가는길에 | 50 엄동설한 달맞이꽃 |
| 26 얼키설키 얼혔어도 | 51 골목길은 여전한데 |
| 27 눈이오면 산의속살 | 52 약수터에 차가운물 |
| 28 올망졸망 모여있네 | 53 경계선이 선명하게 |
| 29 피라칸타 빨간열매 | 54 수정처럼 맑은얼음 |
| 30 깃털처럼 얇은눈도 | 55 강가따라 올라가며 |
| 31 아이들은 재미있어 | 56 잠깐만요 놀다가요 |
| 32 예수님은 포도나무 | 57 강아지풀 간질간질 |
| 33 담장위에 하얀눈이 | 58 한아가기가 태어났네 |
| 34 고무나무 푸른색이 | 59 빨간감이 세수하고 |
| 35 항아리와 하얀눈이 | 60 수백년을 한자리에 |
| 36 바닷가의 추억들을 | 61 하얀눈이 내리야침 |

2장

연탄



- | | | | |
|----|-----------|-----|-----------|
| 64 | 길고양이 어디가나 | 89 | 온세상이 새하얗다 |
| 65 | 조용하게 밝아오는 | 90 | 학나래교 아래에서 |
| 66 | 겨울에는 눈보라가 | 91 | 누군가가 아침일찍 |
| 67 | 커피한잔 시켜놓고 | 92 | 전등으로 비춰주고 |
| 68 | 푸르르른 고무나무 | 93 | 소백산은 칼바람이 |
| 69 | 함께있어 의지되고 | 94 | 한가로운 세종호수 |
| 70 | 어스름한 새벽시간 | 95 | 화분에서 잘도산다 |
| 71 | 무수히도 밟히면서 | 96 | 겨울이라 꽃한송이 |
| 72 | 나무들은 눈속에서 | 97 | 태백산의 주목나무 |
| 73 | 달이뜨는 전월산아 | 98 | 나뭇가지 눈꽃피어 |
| 74 | 하얀눈길 달려가듯 | 99 | 물방울이 떨어질까 |
| 75 | 하얀눈옷 은빛나무 | 100 | 공사장의 추운새벽 |
| 76 | 뜨거운차 후후불어 | 101 | 갈때까지 가더라도 |
| 77 | 천지창조 열렸구나 | 102 | 따끈따끈 군밤이요 |
| 78 | 여름에는 푸르른옷 | 103 | 정동진의 바닷가는 |
| 79 | 눈밭에서 강아지들 | 104 | 베란다의 유리창문 |
| 80 | 굽이굽이 산너머산 | 105 | 동해바다 검은바위 |
| 81 | 눈이불을 덮어보자 | 106 | 수평선을 바라보며 |
| 82 | 산호초속 얼음나라 | 107 | 성경책은 오랫동안 |
| 83 | 쭈쭈뻗은 나무들이 | 108 | 백설같이 하얀눈이 |
| 84 | 누군가의 하룻밤을 | 109 | 옛추억을 얘기하며 |
| 85 | 가야산은 만물상산 | 110 | 겨울에도 온세상에 |
| 86 | 남덕유산 철계단을 | 111 | 뿌리깊은 지나무는 |
| 87 | 눈속에서 아이들이 | 112 | 죽었던집 살아났네 |
| 88 | 눈외투를 뒤집어쓴 | 113 | 십자가는 나무보고 |

3장

동백꽃



- | | | | |
|-----|------------|-----|-----------|
| 116 | 아니 벌써 빈커피잔 | 141 | 천년사는 주목나무 |
| 117 | 몸매자랑 요염하네 | 142 | 멀리뵈는 한두리교 |
| 118 | 어디든지 갈수있네 | 143 | 한두리교 다리아래 |
| 119 | 낙엽들이 지난여름 | 144 | 우리동네 개울에는 |
| 120 | 허허벌판 한가운데 | 145 | 밟지않은 새하얀길 |
| 121 | 담넘어온 나뭇가지 | 146 | 싱싱하다 보성꼬막 |
| 122 | 얼음짱물 한바가지 | 147 | 멈춰버린 배안에서 |
| 123 | 이백년간 사람들이 | 148 | 조각배가 한가하게 |
| 124 | 대청호와 충주천이 | 149 | 담너머엔 뒤편이 |
| 125 | 작은딸이 선물했다 | 150 | 뜨끈뜨끈 커피한켄 |
| 126 | 추워야만 꽃이피는 | 151 | 고드름은 땅쪽으로 |
| 127 | 울망줄망 곡식자루 | 152 | 꽃다발을 주고싶다 |
| 128 | 연날리는 아이들이 | 153 | 겨울동백 여름장미 |
| 129 | 푸르르다 앵초잎새 | 154 | 정상돌탑 어느누가 |
| 130 | 수락계곡 수락폭포 | 155 | 바닷가에 두나무가 |
| 131 | 성탄절을 장식하는 | 156 | 하루종일 내손안에 |
| 132 | 수고하고 무거운짐 | 157 | 긴긴세월 추운겨울 |
| 133 | 무슨꽃이 한겨울에 | 158 | 상수랜드 온실에는 |
| 134 | 꽁꽁얼은 저수지에 | 159 | 하얀파도 밀려왔다 |
| 135 | 가장먼저 봄소식을 | 160 | 국화차는 마음한켄 |
| 136 | 겨울에는 이끼라도 | 161 | 계족산성 꼭대기서 |
| 137 | 벼락맞은 주목나무 | 162 | 금강합강 모래룻에 |
| 138 | 할머니의 장독대에 | 163 | 우리동네 뒷동산에 |
| 139 | 춘란한축 활짝피어 | 164 | 함백산의 파노라마 |
| 140 | 환상적인 첩첩산중 | 165 | 물오리가 헤엄치는 |

4장

차돌



- | | | | |
|-----|-----------|-----|-----------|
| 168 | 여기여기 부른사람 | 193 | 잔잔하게 한가하게 |
| 169 | 곰소항에 정박중인 | 194 | 창가에서 따뜻하게 |
| 170 | 할렐루야 외치면서 | 195 | 이보시오 지나가는 |
| 171 | 빈몸으로 휴식하는 | 196 | 고드름이 위쪽으로 |
| 172 | 인연인란 긴끈으로 | 197 | 천년만년 한결같이 |
| 173 | 아궁이에 장작불이 | 198 | 구름친구 다정하다 |
| 174 | 빌딩뒤에 숨어있는 | 199 | 인생이란 수도하며 |
| 175 | 하얀파도 밀려오는 | 200 | 피아노위 춘란한축 |
| 176 | 한낮에는 한가하게 | 201 | 세종시에 처음지은 |
| 177 | 에이레네 바위같은 | 202 | 알록달록 꽃을보며 |
| 178 | 소나무는 바위에다 | 203 | 추운겨울 긴긴밤을 |
| 179 | 오랜세월 첩첩쌓인 | 204 | 아름다운 마음이란 |
| 180 | 신랑각시 여보당신 | 205 | 화여함도 잠시려가 |
| 181 | 누구든지 잠시앉아 | 206 | 도란도란 모여있는 |
| 182 | 예수님은 길이시며 | 207 | 겨울비가 내리는날 |
| 183 | 꽃밥먹고 방귀뀌면 | 208 | 소나무가 도도하다 |
| 184 | 겨울산은 조용하다 | 209 | 꽃을보고 우울했던 |
| 185 | 새벽시장 해산물이 | 200 | 까마귀가 까옥까옥 |
| 186 | 각양각색 차돌들은 | 201 | 꽃선물을 받고싶네 |
| 187 | 해가뜨니 고드름은 | 212 | 뒤집어진 향아리들 |
| 188 | 아이구야 발시렵다 | 213 | 도화지에 형형색색 |
| 189 | 고향마을 그리운산 | 214 | 채석강은 하나님 |
| 190 | 시냇물이 시원하다 | 215 | 꽃을보면 왜이렇게 |
| 191 | 꽁꽁얼은 구담봉도 | 216 | 내려앉은 깊은바다 |
| 192 | 큰바위가 넘어질까 | 217 | 나비답은 호접란이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6:26)

1장

항아리



빈
항아리에
꽃을 꽃으면
꽃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
물항아리





항아리가 추울까봐 눈목도리 들렀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롬10:13)

그분은 오는 자들을 결코 차별하여 내쫓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사소한 소원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설사 말이 안 되는 맹목적이고 미신에 가까운 믿음일지라도

그분은 그것마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독대의 배불퓀이 항아리



모진추위 견뎌내야 단맛나는 봄동된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교회나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복을 주십니다.

밭에 남은 배추



무말랭이 한젓가락 수십번의 손길가네

예수 믿으세요.

어릴 적에는 공부한다고, 청소년 때는 데이트 한다고,
청년 때는 돈 번다고, 장년 때는 너무 걱정이 많다고,
노년에는 너무 늙고 힘이 없다고, 임종 시에는 염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그냥 그때 예수 믿을 꺾 꺾 꺾 꺾꺾거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마지막 때입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무말랭이



하늘향해 두팔벌린 나무들이 할렐루야

청소년의 탈선은
80%가 부모 책임이고, 그중에 60%는 어머니 책임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은 학교 선생님 100명보다 크고,
교회 목사 열 명보다 더 큽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의 땃줄로, 기도의 핏줄로,
말씀의 젖줄로, 성령의 힘줄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입니다.

우리동네 100년 된 둥구나무



회색겨울 하늘에는 그리움이 가득하네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엡5:23-33)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성(性)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할 시에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잠5:18)

대문밖 골목길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풍경



싸르라니 내린눈이 파르라니 쌓여있네

아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엡5:22-24)
특히 아내는 성(性)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남편이 원할 시에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남자의 성적 욕망은 매우 커서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밖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당의 수돗가



하늘높이 올라갔네 크레인인 키도크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제사장이고 목자이고 교사이고 목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몇사람이 지나갔나 눈발자국 남기면서

어머니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첫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해 주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밤새워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고 맑은 표정으로
아이를 맞아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대문 밖 골목길



헛둘헛둘 거북이들 누가누가 늦게가나

자녀의 징계

- ①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 ②매를 때려도 자녀가 노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해야 합니다.(히19:9)
- ③분노하는 마음이나 즉흥적으로 매를 들면 안 됩니다.
- ④하나님께 자녀를 위탁받은 가정의 제사장이며 목자로서 절대 사랑의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⑤매를 때린다는 예고 후에 그 매를 맞는 이유가 분명할 때 때려야 합니다.

대전 현충원역 벽화마을



사자들이 문지기라 주인어른 걱정없네

알고 보면

사람들은 무능합니다. 무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하고 아는 사람과, '내가 왜 무능해?' 하면서
무능한 사람인 줄도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약한 자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능하고 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해주시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알고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동네 성당 옆집



우리동네 썩티마을 가난하다 담벼락이

오! 주님

저에게 오소서. 주님이 없으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제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주여,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동네 골목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교회 좋은교회

예수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서도 죽지 않고 무사하게 넘어간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채찍을 맞아 몸이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사53:5)

대전 송림동 주님의교회



하얀눈길 오르막길 조심하쇼 살금살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슨 선한 것을 찾고 싶은 것일까요?

긴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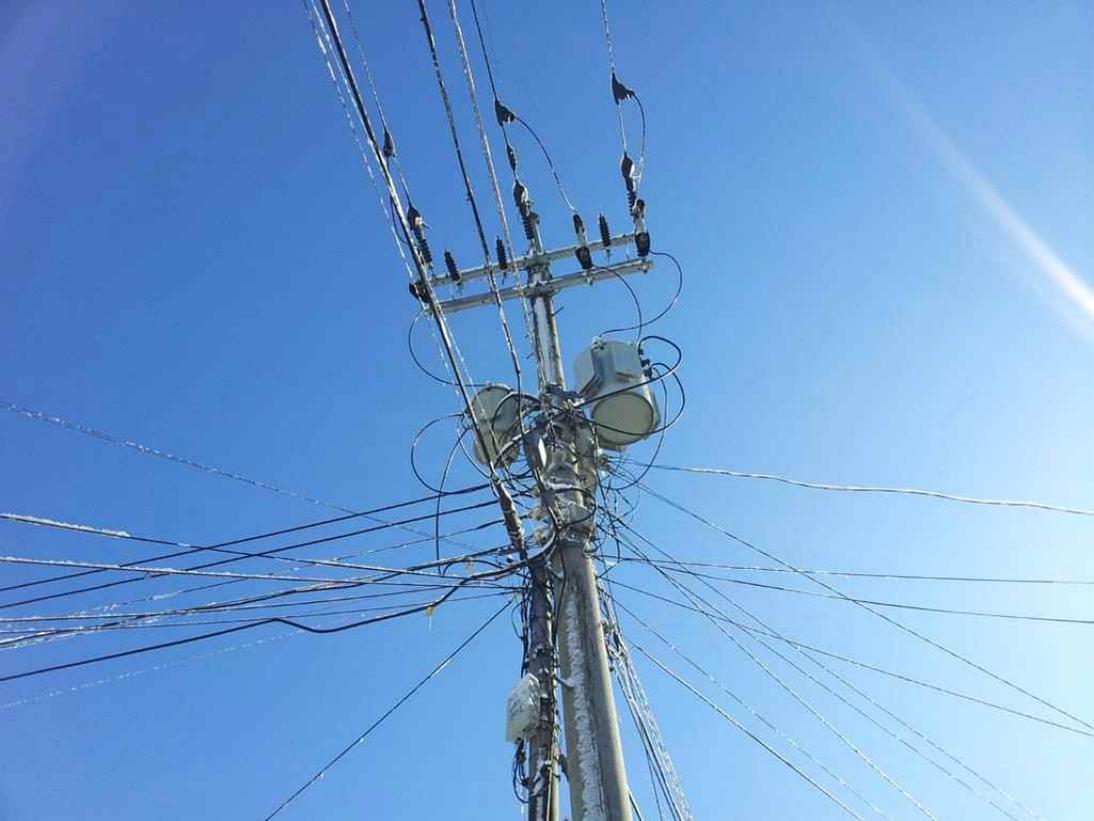
대전 수통골 빈계산 올라가는 길



금남성당 가는길에 금남교회 함께있네

이 세상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주의가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한 세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또는 '욕망'이
어떻게 해서든 차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 어떤 사람은 황금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쓴다고 하던데요.

우리동네 파출소 뒤



얼키설키 얽혔어도 집집마다 불밝히네

정치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합니다.

깡패들은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공자님은 ‘너 살고 나 살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 죽고 너 살자’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냥 아무도 죽지도 죽이지도 말고 사이 좋게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사는걸로 합시다.

집 앞 전봇대



눈이오면 산의속살 드러나네 보드랍게

옛날의 싸움은
진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이었습니다.
힘이 썩 사람은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대놓고 죽였고, 깡패들은 숨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싸워도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서로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세상 아닙니까?

대전 수통골 빈계산 전망바위



올망졸망 모여있네 눈모자쓴 항아리들

밖에서 작은딸이
길고양이와 대화를 시도하네요.
“냐옹~ 냐옹 이렇게 해 봐 응?”
고양이와 소통을 위해서 고양이가 사람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 고양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고양이가 알아듣도록 해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낮추어 인간과 소통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피라칸타 빨간열매 눈속에서 더빨강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그냥 '둘 다 맞아'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희 정승 처세술입니다.

마당의 피라칸타



깃털처럼 얇은눈도 무게있네 그만큼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마당의 피라칸타 나무줄기



아이들은 재미있어 어른들은 아이추워

세상에 남녀평등'이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남자 주제에 여자와 같아지려고 한단 말입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고차원적인 존재이며,
그에 비하면 남자는
정신세계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동물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여성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이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만점을 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만점을 요구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완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합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당의 포도나무



담장위에 하얀눈이 녹아내려 찢김찢김

만일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요?

당신은 왜 장로교회 교인이 되었는데지요?

당신은 왜 개혁주의 신학 노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요?

당신은 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지요?

그때, 당신이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교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태우네 집 담장



고무나무 푸른색이 싱싱하고 생생하다

만일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교리교육과, 언약 역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성경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종교인들만
앞으로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맛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신 교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도토리교회 예배당의 고무나무



항아리와 하얀눈이 정다웁네 도란도란

만일 교회가

항상 깨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성도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이대회가 좋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차세대 교인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못 본체 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당신 교회 목회자가 받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바닷가의 추억들을 아름답게 새기거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으면
무엇인가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임산부가 아기의 영양 섭취를 위해
식욕이 멎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라고 갈급한 땀방울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성적 우둔함입니다.

변산해수욕장



하얀눈이 내려앉아 살그머니 허물뒀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걷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몸에 이상이 온 후에야
그것을 고쳐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영적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집 앞 밭에서



하나님의 크신사랑 바다보다 더넓다네

어디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집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타락(墮落)이란 떨어질 타(墮) 떨어질 락(落)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決斷)을 하지 못하는 태도가 타락이고

그것이 곧 죄(罪)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주홍같이 붉은죄도 흰눈처럼 덮인다네

필요한 것이

은혜로 주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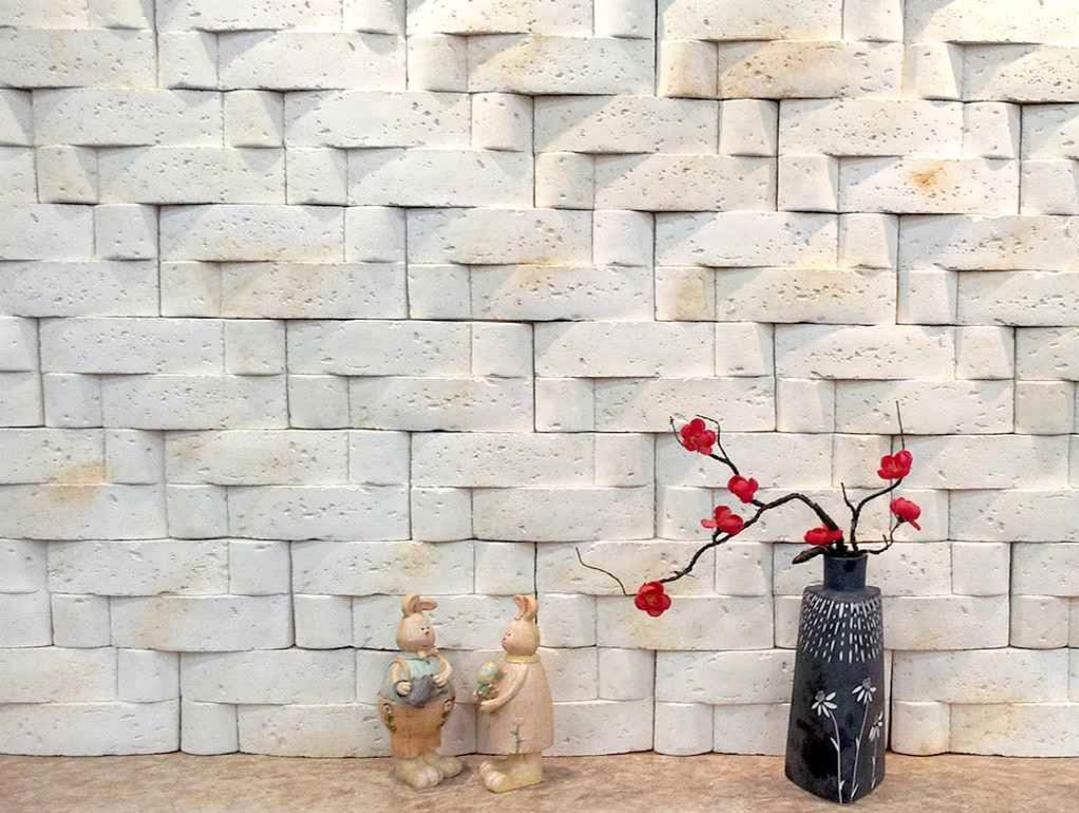
어느덧 감사의 마음은 무디어지다가 사라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니 양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양이 안 차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밭에서



토끼들은 도란도란 매화향기 가득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으며,
그 섬김의 절정은 '생명'까지 내어 주며
사람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까지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든 내 것을 내놓는 섬김이어야 합니다.(마20:28)

마르세라 한식부페식당



벽을 뚫고 열매맺은 완두콩아 장하도다

설령 내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은 친아들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모른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롬5:8)

우리 집 담벼락



겨울에도 싱싱하게 자라나네 푸릇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악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 복음입니다.

뉴턴(Newton)이 물체를 지구 중심이 끌어당기는
중력(重力, gravity)의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중요한 '원리'입니다.(갈1:4)

집앞 밭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주님사랑 온누리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규칙이기에 그저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엡1:7)

전남 장성 장사교회



얼음장밑 세상에선 꼬롱꼬롱 야단일세

우리가 전에는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흑암(黑暗)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골1:14)

계룡산 동학사 제공



하늘향해 두팔벌려 크신사랑 찬양하네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허기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목을 축여줄 물이 있나 헤매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만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에게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요4:14)

대전 산성동 느티나무